

## 숙청, 김정은 체제 공고화 과정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mailto:jslee@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12-05 22:03:29 | 수정 : 2013-12-05 22:03:29

- '숙청→혁명화 교육→재기용' 패턴이 1인통치 특징
- 당 우위 강화... 잦은 인사 통해 군부 장악력도 높여

국가정보원은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면서 "사안의 성격상 김정은(사진)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자신의 후견인이자 정권 2인자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당을 핵심에 두고 '김정은식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알려진 김 제1비서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동안 김 제1비서의 권력 승계 및 공고화 과정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차이가 있다. 절대 권력의 혈족 세습,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통치의 본질은 비슷하지만 김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후계자의 길을 걷다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것에 반해, 김 제1비서의 권력 승계는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20개월여 만에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차근차근 당내 권력 투쟁 과정을 겪어왔다면 김 제1비서는 독자적 권력기반을 다지기엔 그 기간이 짧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제1비서는 '당 우위' '당의 군 지배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자신만의 통치 스타일을 보여왔다. 김정일 시대에 형해화됐던 당 정치국의 기능이 김정은 시대 들어 회복됐고, 북한의 공식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핵심 실세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된 것도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런 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이 바로 장 부위원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장 부위원장의 실각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김 제1비서가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감지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리영호 등 해임된 인물들은 정치적 절차를 밟았으나 장성택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정은 체제가 불과 2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측근 중의 측근을 밀어냈을까 하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갑작스럽게 불거진 '장성택 실각설'은 김 제1비서의 '1인 지배체제 공고화'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 부위원장도 실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김 제1비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제1비서는 실제 군 장성들을 자주 강등하고 복권하거나 핵심보직의 인물을 빈번히 교체하면서 군부 장악력을 높여온 것으로 분석된다.

'숙청→혁명화 교육→재기용'이라는 패턴은 1인 지배체제의 특징적 현상으로 공포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라는 군주제적 스탈린주의 체제에서 (누구도) 하루아침에 직무 정치

당하거나 해임될 수 있는 '수령의 제자 및 전사' "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층 강화된 1인 체제가 됐지만 아버지 김 위원장이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는 달리 경험이 부족한 김 제1비서가 장 부위원장 등 후견인 조력 없이 돌발적 선택을 할 경우 대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반면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 정책 방향으로 볼 때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향신문